

# PLA수지, 2004년 하반기 도입

견고성 · 투명성 높아 응용범위 확대 ... Cargill-Dow 공급

생분해성 고분자 수지가 새로운 친환경 재료로 각광받는 가운데 강도와 투명성이 뛰어난 PLA(Polylactic Acid) 수지가 빠르면 200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생분해성 고분자 수지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PCL(Polycaprolactone)나 AP(Aliphatic Polyester)는 분해와 성형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녹는 온도와 강도가 낮고 투명성이 부족해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응용에 한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앞으로 도입될 PLA는 녹는 온도가 PCL보다 2배 이상 높은 150-175℃로 투명성이 좋아 용기 및 생활용품, 전자제품의 Housing, Fiber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PLA는 Cargill-Dow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네브라스카 생산설비를 증설했다.

한편, 국내공급을 위해 국내 3개 관련기업이 Cargill-Dow와 공급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4/06/30>